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어라, 2020 년은 3 개월 전에 시작되는데 벌써 새로운 해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년”과 “연도”가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통의 “1 년”은 1 월 1 일에 시작되어 12 월 31 일에 종료합니다.

그것에 비하여 “연도”라는 것은 주로 학교와 사무소 혹은 기업 등에서 사용되며, 4 월 1일부터 다음해 3 월 31 일까지의 1 년간을 말합니다. 일본에서의 학교는 4 월 1 일을 기점으로 학기와 학년이 시작됩니다. 회사와 사무소에서도 4 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입사식이나 입학식의 풍경도 자주보이기도 합니다. 4 월초는, 벚를 심고 벚꽃을 즐기는 등 일본에 가장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이번 리빙인 미야자키에서는 4 월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당협회의 다음 연도의 강좌와 행사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어학습]

이번 연도는 4 월부터 초급 1 과 초급 2 의 일본어 강좌를 개강합니다. ‘초급 1’은 일본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 대상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배웁니다. ‘초급 2’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전부 읽을 수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이번 강좌들은 일본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께서 교재를 활용하여 가르쳐주십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또, 일본어 연습회에서는 일본어 자원봉사자와 1 대 1 로 일본어를 천천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기초 레벨부터 학습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이전에 중도포기해서 다시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일본어 강좌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또, 이외에도 일본어 강좌를 각지에서 개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좌·행사]

‘일본 문화 체험 강좌’는 외국인에게 일본과 미야자키의 문화를 전달하는 강좌입니다. ‘외국인 대상 방재강좌’에서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방법과 피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 관련 의견 교환회’에서는 외국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서로 도와줘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그 외에도 영어·중국어·한국어로 미야자키 사람들과 국제교류하는 ‘국제 챗트’ 다양한 국가분들과 접하며 소통의 장으로서의 ‘국제페스타’ 미야자키를 그림과 사진, 한자, 수공예 작품으로 표현하는 ‘아트페스티벌’ 등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에서는 상담을 접수 받고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연도에도 미야자키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존중해나가며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좌와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당협회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안내드립니다. 또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실 경우, 미야자키현 국제 교류협회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은: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TEL:0985-32-8457 FAX:0985-32-8512 E-mail:miyainfo@mif.jp